

SPORTS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신보미레(오른쪽)는 8일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WBC 라이트급 챔피언 케릴라인 뉘비아(24·영국)의 2차 방어전 상대로 나선다. 사진제공=세계복싱평의회

여자 복싱 '랭킹 1위' 신보미레 내일 런던서 뉘비아와 타이틀전

한국 여자프로복싱 간판 신보미레(31)가 세계 복싱평의회(WBC) 라이트급 타이틀에 도전한다.

신보미레는 8일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WBC 라이트급 챔피언 케릴라인 뉘비아(24·영국)의 2차 방어전(2번 10라운드) 상대로 나선다.

WBC 랭킹 1위인 신보미레는 2016년 프로복싱에 데뷔, 2022년 5월 이란다 파올라 토레스(멕시코)를 꺾고 WBC 여자 슈퍼페더급 챔피언에 올랐다.

2차 방어까지 마쳤던 그는 지난해 5월 벨파인 페르손(벨기에)에게 패해 WBC 슈퍼페더급 챔피언에서 내려온 뒤 체급을 라이트급으로 올렸다. 신보미레의 통산 전적은 23전 18승(10KO) 2패 3무다.

그의 상대인 뉘비아는 현재 여자복싱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뉘비아는 2022년 프로로 전향한 뒤 11전 10승(5KO)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IBF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보유한 뉘비아는 지난해 8월 마이라 모네오(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해 WBC 여자 라이트급 챔피언을 차지했다. 특히 2018년 제3회 하계청소년올림픽 여자 60kg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기반기가 잘 갖추어진 선수로 알려졌다.

체급별 통합 랭킹을 집계해 공개하는 'Boxrec'에 따르면 223명의 전 세계 여자 라이트급 선수가운데 뉘비아 1위, 신보미레가 2위다.

신보미레 후원회장인 가운데 이상동 회장은 "한국 복싱의 미래 기대주 신보미레선수가 꼭 세계 챔피언의 꿈을 이뤄 복싱 꿈나무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카타르 U-17 월드컵, 11월 개최

참가팀 24→48개국 대폭 확대

48개 참가국 체제로 처음 열리는 2025 국제축구 연맹(FIFA) 카타르 17세 이하(U-17) 월드컵의 개최일이 올해 11월 3~27일로 확정됐다.

카타르 체육청소년부는 FIFA 평의회가 6일(한국시간) 2025 클럽 월드컵 상급 규모 등을 확정된 자리에서 2025 U-17 월드컵 개최일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U-17 월드컵은 20회째인 올해 대회부터 개최 주기와 참가 팀에서 큰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격년제로 치러졌던 대회가 올해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열리며 이 기간 카타르가 모든 대회를 개최한다. 또 24개국이었던 참가팀 수는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2년 성인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한 카타르가 든든한 '물주'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뤄지기 어려운 변화다.

참가팀 수가 늘어난 만큼 본선행 티켓 확보는 쉬워졌다.

아시아에서는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행 티켓을 선점한 가운데 내달 3~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U-17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각 조 2위 안에 드는 8개국이 월드컵 본선에 오른다.

백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예뻐,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C조로 묶였다.

무난한 조 편성이어서 U-17 월드컵 본선행이 유력해 보인다.

2025 U-17 월드컵 조직위원장인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ثاني 카타르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카타르는 아름다운 축구를 사랑하는 이 나라로 다시 한 번 아시아와 그 너머의 팬들을 한데 모을 것"이라면서 "선수와 팬 모두를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시설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달라진' 시페퍼스, 탈꼴찌 싸움서 생존할까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전 승점 단 2점 차로 최하위 경쟁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가 탈꼴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페퍼스는 7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앞서 시페퍼스는 지난 3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21-25 31-29 25-23 20-25 12-15)으로 무너지며 3연패의 늪에 빠졌다. 그 결과 10승 22패 승점 32로 리그 6위에 자리 잡았다.

시페퍼스는 당초 매 시즌 승점차만 신세를 면치 못했다. 창단 첫 해인 2021-2022시즌에는 3승(28패·승점 11)에 그쳤다. 이어 2022-2023시즌 5승(31패·승점 14), 2023-2024시즌 5승(31패·승점 17)에 머물렀다.

이번 시즌은 달랐다. 전력 보강과 빠른 외국인 선수 교체 결단 등으로 팀 완성도를 높였다. 이미 전반기에서 구단 역대 최다 승리와 최다 승점 기록을 경신했던 시페퍼스는 후반기 창단 최초로 10승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현재 V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4경기. 매 시즌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시페퍼스가 6위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상황에서 맞붙을 상대는 리그 7위 GS칼텍스(9승 23패 승점 30). 시페퍼스와 단 2점차로 최하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이다.

올 시즌 전반기만 하더라도 GS칼텍스의 분위기는



지난 3일 광주파스타리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시페퍼스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는 좋지 않았다. 개막전 3연패를 당했던 GS칼텍스는 지난 11월 1일 시페퍼스전 승리 이후 창단 최다연패인 14연패의 악몽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최강팀 흥국생명을 잡고 반등했다. 차근차근 승수를 쌓아간 GS칼텍스는 두 자릿수 승수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부상자들의 복귀가 큰 힘이 됐다.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과 세트 안혜진이 합류한

것. 아울러 리그 최상위 전력인 외인 주포 실바와 함께 주전들이 살아나자 기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경기인 현대건설전에서는 실바가 29득점으로 맹공을 퍼부었고, 권민지와 유서연이 각각 14점·10점을 뽑아냈다. 외인 모마, 정지윤, 고예림 등이 포진한 강팀을 상대로 한 활약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다만 시페퍼스는 올 시즌 GS칼텍스를 상대로

우위에 있다. 5차례 맞대결에서 시페퍼스가 3승 2패로 앞섰다. 여기에 부상에서 빠져있던 미들블로커 하혜진과 세트 이원정이 코트로 복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시페퍼스가 이번 원정경기에서 GS칼텍스를 꺾고 구단 역대 최고 최하위 탈출 균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시아 선수들의 한국 무대 도전... 프로배구 드래프트

내달 11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남자부 100명·여자부 43명 신청

143명의 아시아 선수가 다음 시즌 프로배구 한국 무대를 빛내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배구연맹은 6일 "지난달 13일까지 진행된 2025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남녀부 접수 결과 남자부에서는 19개 국적의 100명, 여자부에서는 10개 국적의 43명의 선수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이란 국적의 선수들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11명, 인도네시아 9명, 카자흐스탄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일본이

1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란·태국 각각 6명 등이 신청했다.

포지션별로는 아웃사이드 히터 54명(남 35·여 19), 아포짓 스파이크러 36명(남 29·여 7), 미들블로커 31명(남 20·여 11), 세트 18명(남 13·여 5), 리베로 4명(남 3·여 1)이다. 연맹은 "드래프트 실시 전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어서 최종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숙한 얼굴들도 있다. 남자부에서는 2023-

2024시즌 OK저축은행,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었던 바이르사이인하고 에디(이상 몽골)를 비롯해 같은 시즌 KB손해보험에서 뛰었던 리우 흥민(대만), 대한항공 소속이었던 마크 에스페호(필리핀), 여기에 2024-2025시즌 대한항공의 지명을 받았지만 시즌 중 교체된 모라디 아레프(이란)까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시즌 흥국생명 소속이었던 레이나 토코쿠(일본)와 이번 시즌 도중 아칼레스전 부상당한 GS칼텍스를 떠난 스테파니 외일러(호주)가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기대주를 또한 많다. 남자부에서는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헤미쉬 헤젤렌(OP·204cm), 이든 가렛(OH·194cm), 그리고 이란 국가대표로 활약한 매히 젤레 가지아니(MB·208cm), 2023-2024 그리스 베스트 서버에 오른 모함마드레자 베이크 가누에 된다.

여자부에서는 2024 세계클럽챔피언십 베스트 미들블로커인 일본의 시마무라 하루오(MB·182cm)를 비롯해 호주 국가대표로 2022년 호주 득점왕을 차지한 엠마 버트(OP·183cm), 인니 리그 시즌 MVP 5회 이상을 차지한 올라 울리야나(MB·181cm) 등이 주목을 받는다.

이번 드래프트는 다음 달 11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의 합류 시점은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도연



박지연



아담 올러

KBO 시범경기 내일 개막...KIA, 롯데와 첫 경기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변경된 ABS·피치클락 등 적용

프로야구 2025시즌 시범경기가 8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로 치러진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KIA타이거즈-롯데자이언츠(부산), LG트윈스-kt위즈(수원), 두산베어스-한화이글스(청주), SSG랜더스-삼성라이온즈(대구), 키움히어로즈-NC다이노스(창원) 대진으로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부터는 2025시즌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모두 적용한다. 변경된 ABS(자동투구판정시스템) 존이 적용되며, 피

치클락 규정도 적용한다. 또 1루 3피트 라인에서 주루가 파울 라인 안쪽 홈 부분부터 3피트 라인까지로 변경된 규칙 또한 적용한다.

ABS존은 지난 시즌 타자의 키에 비례해 상단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고, 올해는 상·하단 모두 0.6%p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키 180cm 타자 기준 약 1cm 정도 내려간다. 피치클락 도입에 따라 투수는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당 타임아웃

웃은 두 차례 허용된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가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또 모든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한다. 다만 13일 kt-NC(창원)·키움-SSG(인천), 15일 kt-롯데(부산), 17일 KIA-SSG(광주)·삼성-한화(대전)전은 오후 6시에 시작한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없다. 취소 경기 또한 재편성되지 않으며, 비디오 판독은 각 팀당 2회 신청 가능하다. 2회 연속 판정 반복 시 1회가 추가된다.

한편 시범경기는 주중의 경우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은 3000원이다. 티켓은 티켓링크, 인터파크 등에서 예매 가능하다. 온라인 생중계는 티빙에서 독점 제공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당구연맹, 정기총회 '성료'

임원진·선수단 등 70여명 참석

광주시당구연맹은 최근 '2025 광주시당구연맹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 서구 차평동 더 파크리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과 김성수 수석부회장, 박용훈 부회장, 정준호 국회의원, 조규연 5·18추진부상자회장, 이우현 광산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과 선수단, 가수 현진영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관현 광주시당구연맹 장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안건으로 회장 연임 당선결과 보고, 2024년도 사업결과 및 2025년도 신규 사업건 보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당구연맹 홍보대사인 가수 현진영의 축하 공연과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 이름을 각인한 당구 큐대가 증정돼 큰 호응을 받았다.

박종규 회장은 "광주시당구연맹을 위해 헌신하는 임원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 당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